濟大新報

發行編輯兼印刷人 金纖鏞
主幹 姜通源
編輯局長 李秉植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洞五八一
電話438. 439
印刷·韓一印刷社
濟州市三徒一洞931
TEL:931

學訓
一, 純粹性의 堅持
二, 自主性의 確立
三, 時代精神의 創造
四, 開拓者로서의 實踐

제13회 졸업식거행

學士百一四名을 배출

國家에 새로운 창조자의 첫발

문교부장관상에 황융수(수의과)君

〈졸업생 백14명이 졸업장을 받고있다.〉

4년 동안 형설의 공을 쌓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68학년도 졸업생 백14명에 대한 제13회 졸업식이 2월15일하오 2시부터 본대학 대강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김대군 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다수와 교수 재학생 많은 축하객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김계용 본대학 학장은 식사를 통해 4년간에 걸쳐 닦은 학문과 그 응용 방법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창조적이며 자유 정의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영예의 문교부장관상은 평균 93점의 성적인 수의학과 4년 황융수군이 받았고 그외 아홉명의 각과수석졸업자가 학장상을 받았다.

각과수석 졸업자 명단과 졸업생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의 수는 졸업생수)

법학과(서옹수10) 상학과(양영철9) 국문학과(고행관9) 농학과(김봉주26) 축산학과(윤좌영11) 수의학과(부성담4) 어업학과(고유봉24) 영문학과(양치원4) 농가정학(김혜옥17)

해군ROTC 명예중대장임명

전반기 김무삼·후반기 이병식

해군 ROTC에서는 입관한 四학년의 뒤를 이어 69년도 명예중대장 및 행정관 소대장을 각각 임명했다.

1학기(3月~8月까지) 명예중대장에는 김무삼 후보생 2학기 명예중대장에는 이병식 후보생을 각각 임명했는데 그외 행정관 각소대장은 다음과 같다.

△1학기∨ 행정관 김형필후보생 (1소대 박은기후보생 2소대 강권칠후보생)
△2학기∨ 행정관 변창익후보생 (1소대 김윤겸후보생 2소대 고경옥후보생)

입학시험(후기)실시

經營科 二·六對一 높은비율보여

예년과 달리 主觀式으로 출제

1969년도 후기입학시험이 19일부터 본대학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입학시험이 출제방법은 주관식으로 되어 시험생들이 답안지를 메꾸기에 진땀을 빼기도했는데 19일 필답고사(국어 영어 수학 선택과목)을 전부마치고 20일 신체검사와 면접을 실시했다.

도합12개학과 총2백5명모집으로 되어있는 금년도 입학시험은 모집정원에 비해 40여명이나 모자랐는데 학교당국은 모집인원이 부족한 학과에 대해서는 재추가 모집을 할 정 이라고한다.

이날 특히 경영학과는 2.6대1이라는 높은 경쟁율을 보였는데 그외 법학과、영문과、어로과등도 경쟁이 다소 강한편이었으나 나머지 학과에는 약간씩의 정원미달의 초래를 가져왔다.

〈아랫사진은 입학시험광경〉

李京男敎授 論文集發刊

상학과 李경남교수가 지난 1월30일 地方財政에 대한 論文을 책으로 발간했다.

이 論文은 우리나라 종합경제개발 계획의일환인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재정 역활이어떠한 목표의 설정및방향으로 시책되어야 할것인가를 논술한것인데 특히 이 논문은 제주도 당국의 연구요청에 의해 된것이라 한다.

社說

졸업생들에게 부친다

大學生活 四年과 全螢窓生活 一六年을 끝내고이제 情든 캠퍼스를 등지고한파가 물길치는 社會에 첫발을 내딛는졸업생들이 지난 15字로 濟州大學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15日 본대학 第一三回 졸업식이 盛大히 거행되어 社會의 一員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에 榮光과 大成있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工夫하는 대학생」「연구하는 敎授」라는 슬토건 아태 참으로 지난 해들은 다난스러웠다. 아프게 살던 生活에서 보납은 이제 눈이 부시고 그러나 더아픈 生活의 문턱에 들어서는 본대학 백여명의 졸업생들의 앞길에의 발자취가 뜻깊은 것이길 빈다.

돌이켜보면 너무 다난스러웠던 대학생활 四年이 졸업생 어리분에게 얼마만한 이익을 가져왔느냐 하는것은 차라리 하룻밤을 새면서 손익계산서 정도로 퍼뵈야 힐것인지도 모른다.

政治的 社會的으로 인한여러가지 問題들이 대학 캠퍼스 속으로 파문을 이루게 해 不安全한 時間속에 眞理탐구에 몰두 할수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낳게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곤난과 고통을 이겨낸 여러 졸업생들의 노고에 치하하지 않을수 없다.

제주대학은 날로 눈부신 發展도상에 있음을 주시할때 대학 본연의 며전을지켜온 여러분들의 꾸준한노력이 참으로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버린 것에 대해 대학의 내일의 기틀은 단단한 차림을 놓게 했음이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제 진리의 전당이며最高學部인 대학을 떠나는여러분들이 心情은 말할수없는 지난날의 現實을 슬퍼할 것이고 오직 학문에만 열중했던 그쓰디쓴 고배들이 이제 하나의 結實로맺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회희는 이제 또 새로운問題에 봉착케 되는 것입은또 어찌하랴. 여러분이젊음들의 고민은 그민큼 귀중한 결과를 기져오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來日은 지극히 중요한 問題이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社會와 이웃과 國가와 人類란 큰 課題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고민은 더 한층 무거운 어깨를 눌리고 있다.

한사회 한국가가 보다前進을 향할때 거기에는 술한 몸부림과 激動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인해 비약되는 본대학내에도 온갖 시련과 아픈 고통이 휩쓸고 지나 갔다는 자위만도 아닌 합수적관계가성립되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知性은 사색과행동과 모든것에 대한 일체의 판단의식은 그만큼 무서운 눈으로 투시해본 思考의 경험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의 信念는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귀중한 것일때 生命은 거기에 비해 너무 약하다.

여기에는 일체의 思想이나 어떤 국가형에에 좌우되지않고 다만 스스로를선택할뿐이다. 굴히지않고 너그러운 관용으로 시회現實에 告發히고 니아갈 方向提示에 선장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본대학의 문을 걸쳐간 여러 선배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각각 많은바 소임을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있다. 동문들의 눈부신활약이 크면 클수록 본대학은 그 이름이 과대할 것이다. 내일의 번영을 위해 꿈은 크다.

본대학의 傳統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쳤느나가이니라 본 대학을 거쳐간동문의 사회활동이 얼미니넓고 크나히는 것에 그傳統의 價値기 있다고 밀힐수가 있더는 것이다.

또 그 有無形의 힘이母校의 번영과 發展에 크낙한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제13회졸업생 여러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참여케 되는 入口에 서있다. 여러분 스스로의 自身들의 信念이 굽히지 않는한 본 대학은 또 하나 傳統을심게되고 앞으로도본大學을 거쳐갈 많은 후배들이 선배들로서의 그「像」ㄴ은 결코 무시할수없는先覺자로서의 책임이 큼을재차 당부하는 바이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닦은바 素養을 충분히 반휘하여 이 사회가 좀더 명랑하고 참신한 사회인의것임을 여러분의 손에 또달려 있으리라 크게 생각하는 바인 즉 그동안 大學四年間에서 배우고 익힌스스로들의 실력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또한이처럼 형설의 功을 쌓은이들을 지도 육성하느라고심혈을 기우리신 교수및 大學當局에 내해서도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大成을 빈다.

× ×

임관식 해군ROTC

國防長官賞 좌성욱君

해군ROTC창설 이래 처음 배출

69년도 해군ROTC에 비사관임관식이 27일상오10시 대강당에서 해군 본부인사 참모부장 김동배 소장을 비롯도내 각 기관장능 여러 회부형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본대학 해군ROTC창설이래 처음으로 배출되는 후보생○○명은이날 빛나는 계급장을받았는데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에는 좌성욱 후보생에게 주어졌고 참모총장상에는 고봉옥후보생 그리고 단장군기상에는 고유봉후보생에게각각수여 되었다.

이날 임관된 후보생들은 앞으로 鎭海에서 교육을 받은후 각 임무부대로 배치 될것이라 한다.

〈69년도 해군ROTC 임관식. 본 大學에 창설된지 처음으로 배출되는 해군장교들이다.〉

임관식 육군ROTC

국방장관상 윤좌영(축산과)군

영예의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1969년도 육군ROTC제2기생 임관식이 21일상오10시 본대학대강당에서 베풀어졌다.

윤좌영外 ○○명의 후보생은 이날 영예의빛나는 소위 계급장을달았는데 이날 식전에는 2군 예비군부장 이계완 준장을 비롯한 구자춘도지사、학장이하 도내 각 기관장및 학부형들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는데 李예비군 부대장이대독하는 육군참모총장훈시에서 「공부하며 연마한 군사 전술을 이제 실제 응용할때가 온것」이라고 말하면서 초급장교로서 맡은바직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앞길에 군인은앞장서서 싸운다는 명제를 밝히면서 영예의계급장을 다는 여러 후보생들이 책임이 큼을 더욱 강조했는데 이날 영예의 입상자들은다음과 같다.

△국방부 장관상‖윤좌영후보생
△참모총장상‖김봉주후보생
△2군사령관상‖김경택후보생
△CAC사령관상‖현철호후보생

〈육군ROTC 제2기생 임관식이 18일대강당에서 베풀어졌다〉

소식

브라질 인터나쇼날 大學校에서 農化學 박사 학위

梁昌日 敎授

본대학 양창일교수가 브라질 인터나쇼날 대학교에서 농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통과제출된 논문으로는「알긴酸 소ー다의 농도가 알긴酸 소ー다의 重合度에 미치는生物理學的연究」外 副論文 2편인데 이 論文이 통과되므로서 지난 1月26日字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略歷
◎제주도 翰林邑동明里出身(만33才)
◎1958년 중앙대 약대졸업 1960년 同大學院 藥學碩士학위
◎중앙대 약대에서 助敎및연구 △현재 본대학 조교수(제조학과)生化學및 物理化學、自然科學담당.

「카느」모임에서 CANOE誌 發刊

회원발표회도가져

새로운 것을 찾고연구하는 것을 목표로젊은이들이 모어 삶과투지를 길러 협동과 인내심을 찾자는 카느모임(회장 고인승 증식과1년)에서는 지난2일 시내 선일다방에서 회의를 열고 4집 카느誌의 발간에 대한 스스로의 비평과 회원발표를 가졌다.

그동안 월간으로 카니지를 계속 3집까지발간해온 이 써클은 앞으로도 계속 회지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카느지 5輯을 편집중에 있다고한다.

오두평

□…제주대학은 지난15日字로 또 기인열쇠를풀었다. 졸업생백14명에 대한 어설프기만(?) 한 웃음들이 캠퍼스에 가득히 피워 매 아닌 오색찬란한 꽃다발네푸들이 나부꼈다. 졸업식치곤 그다지 화려하지만도 않은 식장에서 익살스럽게 졸업생들은 농담을 부치어 떠나는 슬픔을 억제하기도 했다. 부디 영광과 대성이 이루워지기를 祈願한다.

□…故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시에서「…나라가 니에게 무엇인가를 해줄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한것인가를 생각하라」는 名言이 있다. 한 사회、한국가에 대한 졸업생 여러분들의 자신은 지성이 빛나는 아침태양이어야 할것이다. 지난날들의 아픈감성은이제 말끔히 씻어버리고 젊음의 나부끼는 거리에서 새로운 사회인의 되어야 함은물론이다.

□…知性人으로서의사회적인 지격은、배출되는 본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발전하는 제주도의 先上에 서있어야 할것이다. 봉급 날을 위해 하루를 살고있는 샐러리맨보다도、세탁기를 민지고 가정의 모든일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정주보디、운전수、상인혹은 농부…제각기가 지고있는 신념으로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때 그들에게 사회는 투절한 知性과 예리한 사회적 판단을 바라지 않을수도 없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인의 知性ー곧비로 현대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랜 시련에서 이겨낸 결실이 이제 히니의 보람을 찾아 씨잇이 되고 새로운 지리를 마련하고…… 사회는 그들로 ㅣ해서 약소하게나마 밝고 명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국의 知性은 문병객이 없이 쓸쓸히게 앓고 있다. 옛날부터내려오는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치료조치 않는채 우리들은 앓고있누 것이다.

히늘이 맑고 탁트인 병실에서 그 병은 취으로 본품없이 때가둔고 더러워져 있다. 낡을 사랑해보지 못한시람、생명의 하류에서썩은 고목처럼 갈증을느끼는 사람、영혼은 날개가 없고 심한 구토증만을 느낀다.

이러한 한국의 知性을 누가 고쳐줄 것인가.

‖卒業式辭‖

四年間 형설의 功속의 아픔

독서와 사색과 정력적 실천

〈學長〉 金纖鏞

오늘 우리본大學 第十三回 卒業生및 學士學位授與式을 거행되는 이자리에문교부장관님을 대리하여 멀리서 오신 貴賓 여러위와 學父兄 그리고 同窓會員여러분께서 公私多忙 하심에도 不拘하고 이렇게 많이 旺臨하시와 이식전을 더욱 빛내게하여 주신데 對하여 衷心으로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 빛나는 자리에서 卒業生 여러분의 오늘의 榮光과 보람찬 前途를 道民과 더불어 祝福하여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卒業生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四個年間 本大學에 在學하는동안 家庭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러분들은學生本然의 姿勢와 本分을지키면서 意慾的으로 眞理探究에 專心 精進한 보람으로 여기에 四個星霜의 螢雪의 功을 매듭짓고 最高學部의 卒業이라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이 榮光은 단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國家社會와 家庭과 學園에서 直接間接으로 또는 物心兩面으로 指導鞭撻하고 사랑해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즐거움인 것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本人은 오늘 이처럼 意義 깊은 學位를 받고 情든 캠퍼스를 떠나는 여러분의 壯途를 祝賀하면서惜別의 人事를 겸하여 마지막으로 몇마디 付託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나라의 大學敎育은 國家社會와 人類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오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연구하고 아울러 人格의 陶冶와 健全한 思想을 함養하여 有爲한 棟양的 役割을 하는 人材를 養成하는 것을 理想으로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는事實입니다.

이러한 点에 의하여 考察할때 本大學의 敎育의主旨도 한마디로 말해서 學問의 專修과 그를 多角度로 活用할수있는 能力을 가진 人格者의 養成에 두어야함을 再認識한 必要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깊고 넓게 專門的 知識을 敎授연구하여 그應用能力과 活用技術을 練磨하고 習得시킴은勿論、道義 意識을 鼓吹하고、自由와正義와 秩序를 알고 行하는 勇氣있는 人間을 育成해내야 한다고確信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理想과 目標가 單純한 卓上의 理論이거나 非實質的理念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強調합니다.

卒業生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卒業證書를 받는 것으로써 自己滿足하여 도취하거나 十六年間에 걸친 學窓生活의한 종점에 다달았다고 해서安도의 休息으로 해이한 狀態가 되어서는 決코안됩니다.

여러분들은 變轉無双한文化文明의 分化 時代에 살고 工夫해 왔으며 非人間的 메카니즘의 要素로 充滿한 社會、優劣의 生存競爭이 極甚한社會、無知한 暴擧와 不信과陰謀가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人生의무대로 進出하려 하고 있읍니다.

共産陣營의 侵略戰爭으로 야기된 世界的인 超緊張狀態속에서 祖國은 至今 貧困과 未開와 無知를 몰아내기 위하여 近代化의 偉業成就에 모든힘을 傾注하고 있음을 잘 아실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重要한 時期에 卒業하고있으며 참으로 重大한 任務와使命을 짊어지고 校門을 나서고있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習得한것은 오로지 하나의 原理요 기본적인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있는 諸般難題의 克服 그리고 모든 課業의 解決은 그 原理와 方法論을基礎로하여 그위에 不斷한努力과 熱誠으로서 연구하고 한없이 試驗하여 가장 現實的이요 合理的이면서 同時에 가장 理想的인 分枝的 原理와 방법을 探索해냄으로서만 이루워질수 있는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거듭말씀들이거니와 여러분들은 오늘로서 一段學窓을 떠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決코 여러분이 배울것을 다배우고 알것을 다 안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배우고 알아야할 知識의 質量은 끝이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의 참된 연學과 修練은 지금부터 始作되는것이며여러분의 人格이 본질적인陶冶와 知的成熟、그리고 고차적인 지성의 發霜와 豊富한 인간성의 培養을 通한 개인으로서의 완성은 來日부터의 중차대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事實을 自覺해야 할것입니다.

끊임없는 독서와 깊은思索과 정력적인 實踐이 없는 생활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한 意義를 완전히 백지화히는 結果를 招來하고야 만다는것을 다시금覺悟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여러분!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은 자기 일개인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기 민족과 세계인류의 繁榮과 복지사회전설에 강력적으로 直結시키고 影響力을 作用하는 形態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부연해서 이야기하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생산하는사람、창조히는사람、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성실하게 봉사하는사람、大義를 위하여지신을 草芥처럼 던지고 쇠신 분골하는 犧性的 투지를 기지고 실현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祖國은 남북양만의 민족적 비극속에서 야기되고있는 共産侵略에 對抗、민주통일을 念願하면서 前近代를 탈피하기 위히여몸부림치고 있읍니다.

世界는 동시의 相수된 이데오로기의 緊張된 冷戰을 熱戰一步前까지 몰아가고 있읍니다.

이모든問題는 良心的이고 愛國的인 有爲한 人材들만이 해결해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오늘과같이 社會와 國家가 또는 世界가 여러분 처럼 젊고 力動的인 人材를 要請하는 時代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期必코 우리의 후손에게도 다시 辱되고 고난에 찬역사를 遺傳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一九六九、二、一五

自由中國篇

韓國學生會長 韓康洙 自由中國을 다녀와서

自由中國이 政治、文化、經濟의 中心地인 대북시는 新公園、植物園、박물관、龍山寺 等 구경할 만한 名所가 많았고 특히 孫文先生의 百年 誕辰記念으로 세웠다는 都心 近郊에 있는 中山博物院에는 殷、周에서 부터 淸나라까지의 藝術品이 무려 30여만점이나 展示되어 있어 찬란했던 옛 文化를 明기해 주는것 같았다。

世界 最大의 靑銅、도자기、玉器、書畵、조각、染織、漆器、古文書、裝身具、貨幣等、國寶級 藝術品이 보는 이의 눈을 황홀케했으며 징기스칸이 입었다던 갑옷과 투구도 눈에 띄었다。

박물관 관람을 끝으로 우리들은 五時間정도의 自由時間을 갖게되어 제각기 市街地觀光에 나섰다。

나는 서울出身 대만大學 유학생의 案內를 받으며 거리구경을 하였는데 낮에는 거리에 비교적 사람이 드물었으며 軍人들도 패기가 없어 보였다。

더구나 쑈-핑을 할땐 일본어로 거래하며 거리의 네온선전관을 보면 일본에 온것같은 착각을 일으킬정도로 상품、상용어까지도 일본시장 그대로인것 같았다。

특히 에누리가 심하여 심지어는 택시料金까지도 에누리가 通했다。

傳統을 갖인 나라로서 중국고유한 衣服을 입는 자가 보기드물었고 여자들은 치마가 짧고개방적인것 같았다。

이발소를 비롯하여 각종 써비스業体엔 거의 女子들이 活動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고등학생들도 영어를 구사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 학생들도 각각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이번 자유중국을 訪問하고 가장 놀란 점은 日本이 등남아에서의 비중이 생각했던것 보담 큰것이었다。一八九五年 淸、日戰爭의 敗戰으로 하관 條約에서 일본이 50年間이나 支配 했었다는 悲運의 歷史를 갖인 대만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 解放된지 24年이 지난 오늘날 원한의 民族感情도 찾아볼길없이 이처럼 일본이 깊숙히 자리를 차지할수있었다는 점에는 더욱 호기심이 충동질을 했다。

우리나라와 똑 같은 아세아의 反共國家로 年平均 국민소득액이 일본 다음으로 손꼽히는 亞細亞 經濟 부강을 자랑하는 대만의 수도 대북원활시를 방문하러 가는 길이다。포장된 꼬불꼬불한 國道를 따라 車窓 밖에서 展開되는 들판에는 이모작의 벼가 黃金 물결을 이루고 있고 農村에도 草家를 볼수 없었으며 이따금씩 산 등성이 넘어로 工場굴뚝이 솟아있어 文字 그대로 農工並進이 나라임을 칫눈에 짐작케 했다。

또 하나 나의 觀線을 끌리게 한 것은 거리의 표식이었다。都心地에서나 한적한 農村에나 道路邊에 「將총봉 萬歲」「反共毛討」의 커다랗고 선명한 글씨를 보고 나는 주먹이 부르르 떨려옴을 의식했다。

異國에서 느끼는 祖國愛는 強해

自由中國의 찬란한 옛文化의 향취

박물관엔 30여만점이나 展示

상점의 간판들이 거의가 日本語

世紀의 背反者 모택동을 몰아내고 잃었던 본토를 되찾자는 千三百萬섬사람들이 한결같은 念願이라 생각하며 나의 더운 혈관은 조국을 背反하고 민족을 分裂케한 괴수 金日成을 타도해야 한다는 불같은 적개심으로 끓어 올랐다。

하루 빨리 金日成을 타도하고 勝共統一이룩하여 그 옛날 동방의 빛나는 등불이었던 우리 조국이 다시 자유의 빛을 찬란히 밝혀 아세아의 밝은 빛으로 世界의 照明燈이 되어야 할 때임을 두주먹 힘주어 다짐 했다。

우리을 태운 삐쓰는 60킬로의 속도로 約 한시간 남짓해서 自由中國의 수도 대북에 도착했다 대북시는 基隆 市街하곤 形態부터 판이했고 우선 가로와 가로수가 깨끗이 정돈되 있어서야 국이 이제 그 등불 찬란히 밝혀 아세아의 밝은 빛으로 世界의 照明燈이 되어야 할 때임을 두주먹 힘주어 다짐 했다。

우리을 태운 삐쓰는 60킬로의 속도로 約 한시간 남짓해서 自由中國의 수도 대북에 도착했다 대북시는 基隆 市街하곤 形態부터 판이했고 우선 가로와 가로수가 깨끗이 정돈되 있어서야 불쾌했다。

거리에는 요소에 큰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한 세대당 한 국은 5~6평에 비해 25평의 문화주택을 건설하는 중이라 한다 太極 마크를 보고도 일본인이 여기엔 段、周에서 부터 淸나라까지의 예술품이 무려 30여만 점이나 전시되어 있다。〉

대북시 쇼핑을 마치고 基隆港에 돌아오니 자정이 넘어 동일 아침 出航을 앞뒤고 마즈막 백 알잔을 기울였다。

〈윗 사진은 손문선생 백년 誕辰記念으로 세웠다는 中山 박물관 여기엔 段、周에서 부터 淸나라까지의 예술품이 무려 30여만 점이나 전시되어 있다。〉

◇필수 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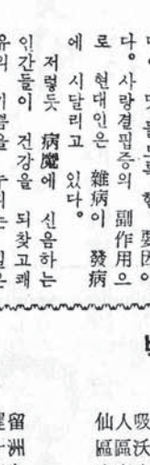
「내가 만나는 열굴마다 슬픔의 그릴자와 피곤의 빛」 英國의 詩人「윌리암·브레이크」가 읊은 싯귀에서 現代人의 어두운 心層을 읽을 수 있다。

多彩로운 文明의 향연속에 온갖 享樂을 포식하면서도 不滿과 슬픔의 기반에서 고개를 빽대지 못하고 「니힐」의 悲歌만을 읊조리고 있다。

文明의 魔力에 마비된 人間들의 발걸음은 취영청하며 格調높은 힘찬 발자국의 音響은 들려오지 않는다。

文明이 베푸는 황홀한 桃源境에 陶醉되어야 할 人間들이 마냥 호못한 가슴을 갖지못하고 虛風으로 채워

病든 人間



李熙柱

탁탁한 공기만을 흡수하고 먼지만이 沈澱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건강을 어찌 바랄수 있으랴。

現今의 人間의 病原은 사랑의 갈증에 기인된다。文明이 提供하는 갖가지 선으름대회를 조직하고 세계 물을 耽溺하면서도 모르고 불만에 구는 이유는 메마른 溫情 때문이다。사랑의 缺乏이現症에 걸리고 말았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훈훈한 사랑의 교통에 있으며 마음과 마음이 닿는 溫情의 교환에 있다。

현대인은 술한 사람들틈에서 참된 마음의 벗을 爽快하고 사랑으로 膏色된 인간적 대화를 잃었기 때문에 空虛感에 시로잡히고회색빛 우울의 감정을 갖게된 것은 事實이다。

바로 이러한 경향이 현대인으로 하여금 奇異한 취미에 맛들도록한 要因이다。사랑결핍증의 副作用으로 현대인은 雜病이 發病에 시달리고 있다。

저렇듯 病魔에 신음하는 인간들이 건강을 되찾고 쾌유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냉냉한 마음을 녹이는 포근한 사랑의 溫水를 부어줌에 있을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利害關係에만 血眼이 되는 편협한 我執을 버리고 인생의 正路가 무엇임을 反省함에있지 않을까?

〈敎養學部·專任講師〉

◇ 수필 ◇

김 철 호

K에 게

君이

날씨가 차겁군。제주도의 겨울은 이래서 탈이야。북서풍이 하루도 없다시피하니 말야。강한 바람위에 눈보라가 칠때는 눈을 뜨고 걸어갈 수가 없어。오나깃 어질듯이 아프거든、오늘은 무슨 散되어 버리기가 일부러 그리움이 있으면 눈은 말았고 위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기 까지 했다고 했다。이렇게 순수하면서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눈이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눈도 있다。밤늦게 노름판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때가 낀 눈。太陽이 中天에 있는데도 어둠침침한 눈。그런가 하면 보다 더 강렬하게 먼곳을 응시하는 눈이 있다。수천이 모습들이 교실 유리창 피트의 上空을 旋回하는 독속에서 그림자 마냥 손짓 수리의 눈。그러나 그눈의 의도는 옴흠스럽다。어느산 하고 있었다。그때 잘 닦아 여진 유리창이 旅愁에 젖 가의 귀여운 병아리를 노 은 나에게 많은 위안을느 리고 있다。그런 눈도 어 께 했다。어느교 마들이 투정을 리면서 혹은 다 선생님께 욕을 리창이 나의 음을 맑게 해주기 역은쉬 잊혀지질않 은다。우리인간에게 도 그런 눈(目)이 들이 있다。눈동자가 사람。아무런 태를 부리지 딴 여자와 단둘이、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에서 밤에 만나기는、 오랫만에 만났으나 말을 그다지 나오지 않더군、그날밤은 둘이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대로헤어졌지、언제 만나겠다고 하더군、난 저녁에 만나겠다는 약속도 없이 며칠 있다가 또 찾아갔지。집에 있더군。밤에 다시 둘이 만났었지。그렇게 둘이 만나면서도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었어。그냐、그 여름날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서 나의머리속에 영원히 기억될거야。시간이 reversed 된다면 지난 여름밤과같은 밤을 다시 갖고 싶다。자연과학적 시간이라면 다시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지금 그녀는 내곁을 떠나가 버렸다。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른다。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은 간다。그러나 君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다。나혼자 교통을 참아가며 혼자 지내보는 거다。그녀가 내곁을 떠나게 되니 모든 것이 귀찮아 졌다。여자라는 존재가 귀찮고 두려워졌다。여자를 저주하고 싶다。그러나 그녀는……

그녀를 저주하거나 나무랄 생각은 없다。더욱 그녀를 Sudi-mation해주고 싶다。사람들은 그와같은 일은 얼마없어서 잊혀진다고 말하지만 어디 잊을 수있을 것같으나?육체의 결합에서이루어지는 사랑은 쉽게 잊혀질지 모르지。

〈식품가공학과 1년〉

담록백 李源祚

頂上高在源
掌如曜日其
夕將暗山月
石朝對岩劃
盤露靈液吸人仙
返去下鹿白區區
洞天騎白鹿下去
仙子舟青牛笑看
泉到十洲清底岩
佛千羅石杉松一
逢住處暫遲留每

※ 이 원 조

① 헌종 7년3월에 강릉부사로 있다가 제주도 방어사로부임 헌종9년 6월에 이임

② 부임하는해 가을 흉년으로 삼읍백성이 기근에 허덕일때 호남변두리 읍으로 부터 쌀(저장미) 2,500석을 얻어다가 백성을구제했고

③ 우도와 가파도에 도민이들어가서 농사짓는걸 허락했다

④ 향교를 굴립서원결에 세우고 춘추사를 대정서당에 세웠다

⑤ 그 외행정도 공이 많음

※ 김 치

① 이조 좌랑으로 있다가 광해군 원년 3月에 부임하고 (제주판관) 다음해 9月 이임

② 본 제주도에 좌면 우면, 정이에 좌면 중면 우면, 대정에 우면 좌면을 두고 약정(면장)을 두어 行政体系를 확립했다. 그리고 모든 민중의 폐해를 개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명관이라 칭송받고 선정비도 세워졌다

암기실영 金 級

留遲洲十山泉到青牛白鹿下返我非仙
幽一經千佛石羅千仍松杉萬학頭괴直下洞天騎白鹿笑看仙子舟青牛표然회出人間表自此仍成漫汗遊

골짜기마다에
숙대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길이 깊숙하구나
저렇게 많이
아름다운 곳엔
바위 밑 맑은 샘이
온통 제주도로
흐르게 되는 곳엔
머물러 머물러
가야한다.
물이 밀으로 떨어지자
흰 사슴 한 마리가 달려
불은 저렇게 깊은 데
신선은 푸른 소를 타고
웃고 있다.
내,
인간 세계를 뛰쳐나가
여기서
한가히 지내고 싶어라.

「濟州年鑑」創刊案內

오늘날 濟州道는 일찌기 없었던 振動과 變遷의 歷史를 創造해 나가고 있읍니다。그러나 이런 狀況과 史實이 記錄되고 整理되지 못한채 時日과함께 消滅되어가는 마당에 있읍니다。

여기에 「濟州年鑑」은 이 時代的要請과 또 뜻있는 여러 道民들의 오랜 待望에 副應해서 이번 文化公報部에 正式登錄을 마치고 定期刊行物로서 創刊을 보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① 濟州道의 全般개황을 綜合整理 여 便覽으로서의 使命을 다 하며 ② 正確 고 權威있는 統計를 蒐合編纂 여 調査研究의 資料로 提供 하며 ③ 濟州道 文化의 창달과 宣揚을 爲 여 貢獻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이 「濟州年鑑」은 이 地方에서는 처음있는 綜合的 記錄文獻으로서 한 年代를 反映하는 永遠한 歷史의 證人이되리라고 確信합니다。

濟州道의 千年後日과 後孫萬代를 爲 여 記念碑的 事業이 되리라고 믿는 이「濟州年鑑」의 無窮한 發展을 위 여 濟州道民 여러분과 國內外 知識文化人 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一九六九年一月二〇日

濟州市一徒二洞一、一六八番地(電話一〇一一番)

濟州年鑑社

代表 金次鳳
編輯委員 崔玄植 〈濟州新聞 編輯局長〉
〃 韓昌榮 〈濟州大學敎授 圖書館長〉
〃 玄鶴淳 〈濟州大學 敎授〉
洪淳晩 〈濟州道 文化公報室長〉
가나다順

主要目次

一、概要
①略史 ②土地人口…位置、面積、地勢、氣候、人口、動植物分布 ③政治行政…一般行政、治安、司法、軍事、政治 ④經濟…金融、財政、經濟動向 ⑤農畜産業…一般農業、特殊農業、林業、畜産業 ⑥水産業 ⑦商工業…商業、工業、電氣、輸出 ⑧通信交通…通信、陸上交通、海上交通、航空 ⑨建設…都市計劃、道路、港灣、空港 水資源開發및上水道、住宅、一般土木 ⑩觀光 ⑪保健社會…保健衛生、醫療、救護、勞動、女性 ⑫敎育 ⑬文化…藝術、宗敎、言論、体育 民俗 ⑭僑胞社會
二、解放23年誌
三、一九六八年 重要日誌
四、重要機關및 團体現況
五、市郡(邑·面)現況
六、統計및資料 七、重要人名錄 八、特 輯

主要內容

菊版 五〇〇面 乃至 六〇〇面 (아트紙및中質紙使用)
廣報 四〇面以上 圖表、寫眞、컬、一〇〇点以上
크로스製表紙 케이스入 高級洋裝
價格 一、二〇〇원 乃至 一、五〇〇원